지역 축제 넘어 세계로 향한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발표회 열고 성과 공유·발전 방향 논의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발표회가 11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개최됐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발표회가 11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무주반딧불축제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박찬주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과 군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5백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더했으며, 무주반딧불축제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는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2025. 9. 6.~14.), (사)한국문화관광포럼을 통해 "무주반딧불축제 평가 및 방문객 분석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 △프로그램별 평가, △방문객 만족도, △향후 축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공유했다.

평가 보고를 진행한 김주호 배재대학교 교수는 "최근 3년간 관광객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올해는 95.6%가 외부 관광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는 반딧불축제가 지역 행사를 넘어 전국 단위 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홍보를 비롯한 프로그램, 교통·숙박 등 편의 체계 마련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제장 전체 공간구조 재편으로 폭염 대응 및 이동 편의성·체류 쾌적성을 개선한 점, △공간 흐름을 강조한 야간경관 연출, △관람 동선 개선을 통한 전시 품질 고도화 등은 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인 사례로 평가됐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대표프로그램 분석 결과에서는 '반딧불이 신비탐사'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반딧불이 주제관',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1박 2일 생태탐험', '반디 빛의 향연', '반디별 소풍', '개막공연', '반디키즈월드' 순으로 호응도가 높았다.

특히 △'반딧불이 신비 탐사'가 대표성 강화와 운영 효율화로 접근성과 지역 연계 효과를 높인 점, △'반디키즈월드' 신설로 가족 단위 체류와 참여를 확대한 점, △'반디의 숲' 전시 통합(반딧불이관·나비관 장수풍뎅이관)을 통해 몰입형 체험을 제공했다는 점 등도 긍정적인 변화로 꼽혔다.

이외에도 △다회용기 의무화와 분리배출 도우미·회수 부스 운영으로 친환경 축제를 제도화한 점, △무주덕유산리조트·나봄리조트 등 지역 내 숙박업소와 연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관광 활성화와 경제 환류를 유도한 점 등이 경쟁력으로 부각됐다.

반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간편식 메뉴 부족, △체험 콘텐츠 안내 및 동선 부족으로 실제 이용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축제 발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생태적 가치와 영향력에 집중해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이 30주년이 되는 만큼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연특별시 무주,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가 준비하는 최고의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겨울철 한파 대비 시설 점검

장수군은 본격적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관내 한파쉼터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고령층·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각 시설의 난방장비 작동 상태, 실내 온도 유지 수준, 환기 구조, 안전 동선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으며 비상연락체계, 응급상황 대응 가능 여부 등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구역이나 동선이 복잡한 시설은 현장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해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군은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총 297개소의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난방 유지 기준과 운영 시간도 함께 점검했다.

여기에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58개소에 온열의자, 13개소에 밀폐형 승강장을 설치해 대기 중 한랭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장수군은 이번 점검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겨울철 체온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넥워머·장갑·귀마개 등 방한용품을 지원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겨울철에는 작은 불편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파쉼터는 군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시설 관리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형 저탄소 종모우 개발 협력

장수군-장수한우지방공사-이티바이오텍-전북대, 공동연구 협약

장수군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이티바이오텍(주), 전북대학교와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수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수형 저탄소 종모우 개발' 공동연구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장수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수 지역 사양환경에 적합한 우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면서도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종모우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종모우 개발을 통해 장수 한우 고유의 유전형질을 확립하고 탄소배출 저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협약에 따라 군은 저탄소 종모우 개발을 위한 사업 총괄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채정·가공·사양관리와 농가 컨설팅에 나선다.

또한 이티바이오텍은 유전체 기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전북대학교는 유전 능력 평가와 우량 암소·후보 종모우 선발을 각각 담당한다.

장수군은 이번 공동연구를 최근 지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내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개발된 종모우에서 생산된 정액은 지역 한우농가에 우선 공급해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후 동부권을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까지 보급 범위를 넓혀 지역 간 상생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수군은 연구성과가 본격화될 경우 △우량 암소축군 조성 △종모우 자립기반 확립 △우량 정액 확보 △장수한우 브랜드 가치 상승 △저탄소 축산 이미지 구축 등 경제·환경·브랜드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제18회 진안군마을축제 결과보고회 개최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는 11일 산약초 타운에서 제18회 진안군마을축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참여 마을 리더와 주민,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각 마을에서 추진한 마을축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쓰레기 3NO운동을 알리는 봉곡마을 부녀회 '봉곡노가바' 동아리의 공연으로 활기차게 문을 열고, 2025년 사업내용을 모아 만든 영상을 시청하며 올 한 해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마을의 리더들이 올해 진행한 축제 기획의 방식, 주민 참여도, 특색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개선점 등을 소개하며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마을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내년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초등학생 대상 겨울방학 건강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이 오는 1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건강 프로그램인 '튼튼몬 어드벤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것으로, 수업은 운동 교실 주 2회, 영양 교실 주 1회로 총 6주간 진행된다.

무주군은 참여 아동의 사전·사후 건강 기초 검사를 실시해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으로, 검사 항목에는 체성분 분석(InBody)과 빈혈검사, 소아당뇨 검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팀 게임을 비롯한 유산소·근력 혼합 운동 등 놀이를 기반으로 한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향상을 주도할 계획이다.

영양교육은 영양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한 식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조리 실습'과 'O/X 퀴즈' 등 체험 중심으로 운영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생산단지 기반 구축

진안군은 올해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생산단지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재배 기계화와 우량 종묘 생산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며 지역 고구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기·피복기·구굴기 등 노동력 절감 농업기계를 농가에 지원하고, 국내 육성 품종의 안정적 증식을 위한 전용 육묘장 1개소를 신규 조성했다.

이를 통해 생산단지 내 농가들은 노동력 부담 완화와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보급 품종인 '호풍미'는 기존 외래 품종 대비 10~20% 수량 증가, 높은 당도, 우수한 식미를 갖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내 육성 대표 품종이다. 상품성과 저장성 역시 뛰어나 농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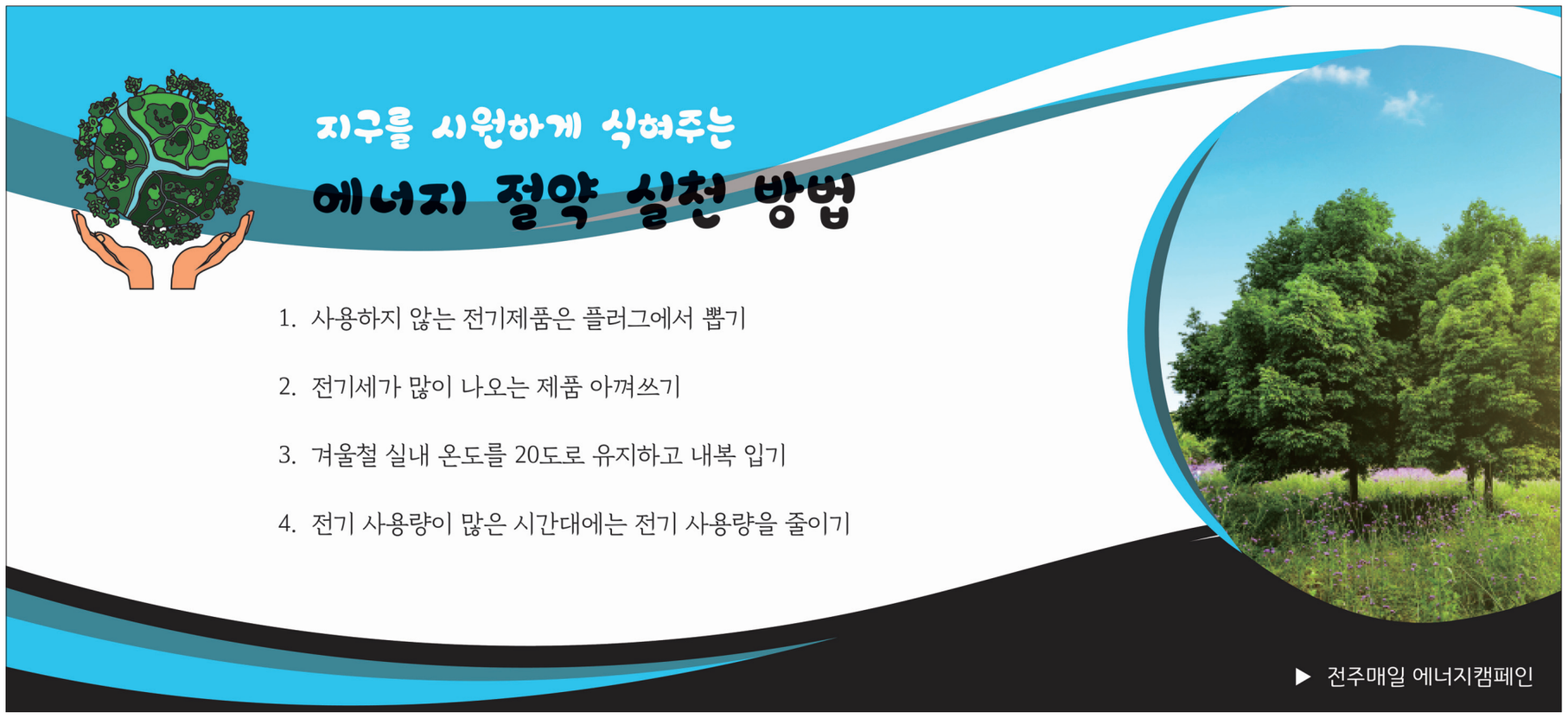
진안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

진안군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군은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배출 저감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 상태 등이다.

더불어 공사장 진출입로의 비산먼지 및 민원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점검원과 함께 건설공사장을 수시로 순찰해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